1700년 한국불교 비구니스님 삶·수행 조명

비구니회 비구니승가연구소
〈역사 속 한국 비구니〉 발간
일본 등 고문헌 40여 종 바탕
비구니스님 활약상 등 총망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역사 속 한국 비구니〉 출판기념회에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관통하며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역할을 조명한 책 〈역사 속 한국 비구니〉가 발간됐다. 전국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5년간 연구·조사한 결과물이다.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와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온 활약상 등이 총망라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역사 속 한국 비구니〉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역사 속 한국 비구니〉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비구니스님들의 문헌과 자료를 촘촘하게 담아냈다. 책은 전영숙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집필하고 감수는 본각 스님, 수경 스님, 원광 스님,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조은수 서울대 명예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특히 부록에는 근현대까지 각 방면에서 활동한 비구니스님들의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한 QR코드가 함께 실려 향후 비구니사 연구의 기반을 다졌다.

책 발간을 담당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2020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했고, 시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중국, 일본 고서에서 역사를 역추적해 순서와 상황을 정리했다"며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로 12차례나 원고 수정 과정을 거쳤다. 사실에 의거한 학술서지만, 딱딱하지 않고 대중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술회했다. 스님은 이어 "지면의 한계로 근현대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조명은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며 "향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보완해 개정판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급변하는 시대에 정보도 빠르게 흘러가지만, 책은 언제 어디서나 늘 손 가까이에서 많은 스님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기본 토대"라고 인사했다.

흩어진 방대한 자료를 엮어 비구니사의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이뤄낸 만큼, 뜻깊은 책 출판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 사실을 발굴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출간한 이번 책 역시 한국 비구니스님들이 노력과 정진으로 이룬 뜻깊은 성과"라고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한국 비구니승가는 17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만 긴 역사에 비해 그간 알려지고 조명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발간은 모든 승가에 훌륭한 거울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을 맡아 책 발간 사업의 토대를 닦았던 본각 스님은 사업의 시초가 된 1999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한 언론사에서 근대 100년 각 종교 여성 지도자를 조명하는 기획을 추진했는데, 중앙승가대 교수로 재직하던 스님이 이를 담당하게 된 것. 스님은 중앙승가대 내 한국비구니연구소를 운영하며 비구니스님 자료 연구에 매진했지만,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97학번 비구니 학인스님들과 전국을 돌며 원로 비구니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정리했다. 틈틈이 신문 기사를 오려 자료를 모으기도 했다. 어렵게 모아 엮은 자료집은 본각 스님이 전국비구니회장 소임을 맡고 한국비구니연구소를 합병하면서 〈역사 속 한국비구니〉 발간의 기초자료로 인계됐다.

전국비구니회는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 전영숙 책임연구원에게 책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관련기사 B15면〉

조계종 인천·강화 전법단 출범…"지역불교 중흥"

12월 17일, 인천 경원재 앰버서더서
70여 명 참석해 "전법 활성화" 다짐

인천·강화지역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펼칠 전법 연합체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천·강화지역 사부대중은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경원재 앰버서더 영빈관에서 '조계종 인천·강화 연합 전법단(가칭)' 출범식을 갖고 지역불교 중흥과 전법 활성화를 다짐했다.〈사진〉

'조계종 인천·강화 연합 전법단(가칭)' 창단은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인천·강화지역을 포교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부단장에는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과 백련사 주지 혜성 스님이, 사무국장에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과 법왕사 주지 홍연 스님이 선임됐다. 향후 전법단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강화지역 포교역량 결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이 넘고, 곧 350만명을 앞둔 중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오늘 전법단 출범을 디딤돌 삼아 포교·전법에 다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불교 발전의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격려했다.

지역 사찰 스님과 불자들은 전법단 출범에 맞춰 적극적인 협력과 전법 실천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사암연합회장 소임을 맡아 인천·강화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개개인의 마음을 모으기엔 구심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법단 출범으로 구심점이 생긴 만큼, 각자 마음 내서 어떻게 포교하고 전법할 것인지 여러 스님이 의견을 나누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순심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도 "현재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에는 446명이 불법을 수호하며 사찰 봉사, 군포교, 사찰문화해설, 탈북민법회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찰 스님들을 외호하며, 함께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강화지역 포교현황과 사례발표를 통해 향후 전법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33개 사찰을 대표해 인천지역을 발표한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군부대 포교 지원이 개개인의 보시에 치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운영지원 사찰'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운영 토대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김내영 기자

선명상 대중화 본격화…51 지도법사 탄생

"대중화 위해 힘 모아주기를"


선명상 지도법사 위촉식

'선명상' 대중화를 견인할 51명의 선명상 지도법사 스님들이 탄생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선명상 지도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 선명상 지도법사를 위촉하고 그 방안을 발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총 51명의 선명상 지도법사는 지난 9월 12~1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특별과정'을 통해 배출됐다. 이들은 당시 월암 스님, 미산 스님, 금강 스님을 교수사로 선명상에 대한 이론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 기획 홍보, 실기 능력 등 심도 깊은 교육과 면접을 통과해 지도법사로 거듭났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지우 스님,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이 지도법사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선명상 공식팀을 꾸려 선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법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양성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법사스님들은 선(禪)과 명상에 깊은 이해를 갖추고 특별과정 연수를 통과한 전문가들이다. 앞으로 선명상 보급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2025년도 선명상 대중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도법사들이 선명상 대중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명상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문사수명상연구원장 일중 스님은 '청년 세대를 위한 8주 선명상 코스'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재 기자

태고종, 2025년 '해동율맥' 세계에 알린다

'국제대승보살계' 봉행할 예정
'태고세미나' 내년에도 이어져



태고종이 한국의 해동율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대승보살계'를 봉행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2회 정기중앙종회를 열었다.〈사진〉

2025년도 추진 사업계획에 따르면 태고종은 내년 10월 중에 '국제대승보살계'를 설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회는 수진 스님을 율사로 한국 해동율맥의 중요성와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열린다. 영산문화축제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의 계율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보살계 법회에는 남방불교, 중국·대만 등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동참한다. 또한 태고종의 중요 역사 자료를 전산화하는 '종단 기록유산 보존자료 아카이브 사업'도 실시된다. 해당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안이며,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불교와 협력해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밝히는 '제7회 태고세미나'도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개최된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도 이어졌다. 태고종은 동방불교대학을 '동방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 정부 인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어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새해에도 많은 종책사업의 개발과 시행으로 종도들의 종단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는 불기 2569년(2025)년 종단 예산액 54억 5216만원을 의결했다. 김민재 기자



총본산 조계사 삼존불 조성 20년

을사년 새해,

조계사 삼존불 개금불사 가 시작됩니다.

2025년 아미타부처님
2026년 약사여래부처님
2027년 석가모니부처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